

열화당이 만든 복간도서와 복각도서

별을 보여 드립니다 전2권

이청준 첫 창작집

1971년 초판의 복간본

裸木 전2권

박완서 첫 소설

1976년 초판의 복간본

조선요리제법

방신영의 한국 최초의 근대식 요리책

1937년 제8판의 복각본

私禱文

대한성공회 세실 쿠퍼 신부의 기도서

1932년 초판의 복각본

꽃다발

김억이 옮겨엮은 조선여류한시선집

1944년 초판의 복각본

복간(復刊) 또는 복각(復刻) 출판은 염(殮)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생을 마치면 고인(故人)의 삶을 정리 정돈하여 비로소 이세상에서 저세상으로 떠나보내듯이, 뛰어난 저술가, 문필가들이 남긴 책을 잘 가다듬어 다시금 역사에 올려 놓는 행위이며, 지난 시대의 참된 말씀을 제대로 담아낼 아름다운 그릇을 구워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를 잘 살피 삶의 교훈을 얻듯이, 책의 원형, 책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열화당이 만든 복간 및 복각 도서들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대체돼 가고 있는, 그리하여 종이책의 종말이 이야기되는 이 시대에, 책의 원형과 존재방식에의 깊은 성찰을 통해 새로운 책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자 지향입니다. 이러한 책만들기의 중심에는 세로짜기(縱組)의 실험적 복원, 한글과 한자(漢字)의 병용(併用), 한정본(限定本) 제작, 종이·인쇄·제본 등 다양한 제작실험 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책에서 오늘의 출판을 모색하는 일이므로 그 편집체제는 세로쓰기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며, 세로쓰기는 우리 글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알파벳이 그러하듯이,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오랜 세월 함께 사용해 온 동방문자(東方文字)이며, 한글은 한자와 함께 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출판의 가치와 묘미를 살리는 한정본 문화는 책이 넘쳐나고 가치가 남용되는 이 시대에 맞서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발행했던 뛰어난 저자들의 책을 새로운 편집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복간(復刊), 그리고 선인들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책을 정교하게 복원해내는 복각(復刻)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冊을

우리 출판의
책뿌리를 찾아서

殮하다

열화당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20-10 파주출판도시

전화 031-955-7000 팩스 031-955-7010

이메일 yhdp@youlhwadang.co.kr

홈페이지 www.youlhwadang.co.kr

별을 보여 드립니다

전2권

이청준 문학의 첫 얼굴 『별을 보여 드립니다』의 기념적 복간본

우리 시대의 뛰어난 소설가 이청준(李清俊, 1939-2008)의 5주기를 맞아, 1971년 일지사(一志社)에서 발행했던 첫 창작집 『별을 보여 드립니다』를 복간했다. 등단 이래 사십여 년간 거대한 산봉우리를 이룬 이청준 문학의 첫 얼굴이라 할 『별을 보여 드립니다』는, 사십여 권에 이르는 그의 소설세계의 밑그림을 이루며, 그의 창작 정신의 근원적인 자리를 보여 주는 작품집이다. 등단작 「퇴원(退院)」, 동인문학상(東仁文學賞) 수상작 「병신과 머저리」 등 스무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일 년여의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과정을 거쳐 고급 서적지에 세로쓰기 이단 조판으로 1971년 초판을 기념적으로 재현했다.

불혹의 세월 동안 찬란히 빛나 온 ‘별’

복간본과 함께 출간되는 둘째 권은, 작가 이청준이 『별을 보여 드립니다』와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에 관해 쓴 글 스물한 편, 『사상계(思想界)』 신인문학상과 동인문학상 심사평을 포함하여 『별을 보여 드립니다』에 관한 평론 네 편, 그리고 작가 자신이 쓴 연보와 자신의 문학에 관한 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가에 관해 쓴 글 여덟 편을 선별 수록했고, 열두 컷의 스냅사진과 함께 작가의 육필 습작노트와 교정용 초판본 등의 자료사진 서른여덟 점을 덧붙였다. 책 말미에는 ‘『별을 보여 드립니다』의 달라진 표현 대조표’를 수록하여, 이 책이 여러 판본을 거치면서 수록 작품의 표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별을 보여 드립니다』 한 권을 시작으로 삼십오 년의 세월과 함께 백여 편의 작품과 삼십여 권의 소설책을 헤아리게 된 오늘에 이르고 보니 그 감회 또한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 첫 번째 책 『별을 보여 드립니다』는 어쩌면 이후의 내 모든 책과 작품들의 원류로서 내 글 씨앗자루 노릇을 해 왔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이고, 다음으론 그간 우리말의 뜻 깊은 변화와 문장·표현의 뚜렷한 발전 흐름 때문이다.”

— 이청준, 2007년판 『별을 보여 드립니다』 머리말에서.

별을 보여 드립니다 이청준 첫 창작집

416면 / 세로쓰기

별을 보여 드립니다 불혹의 세월이 남긴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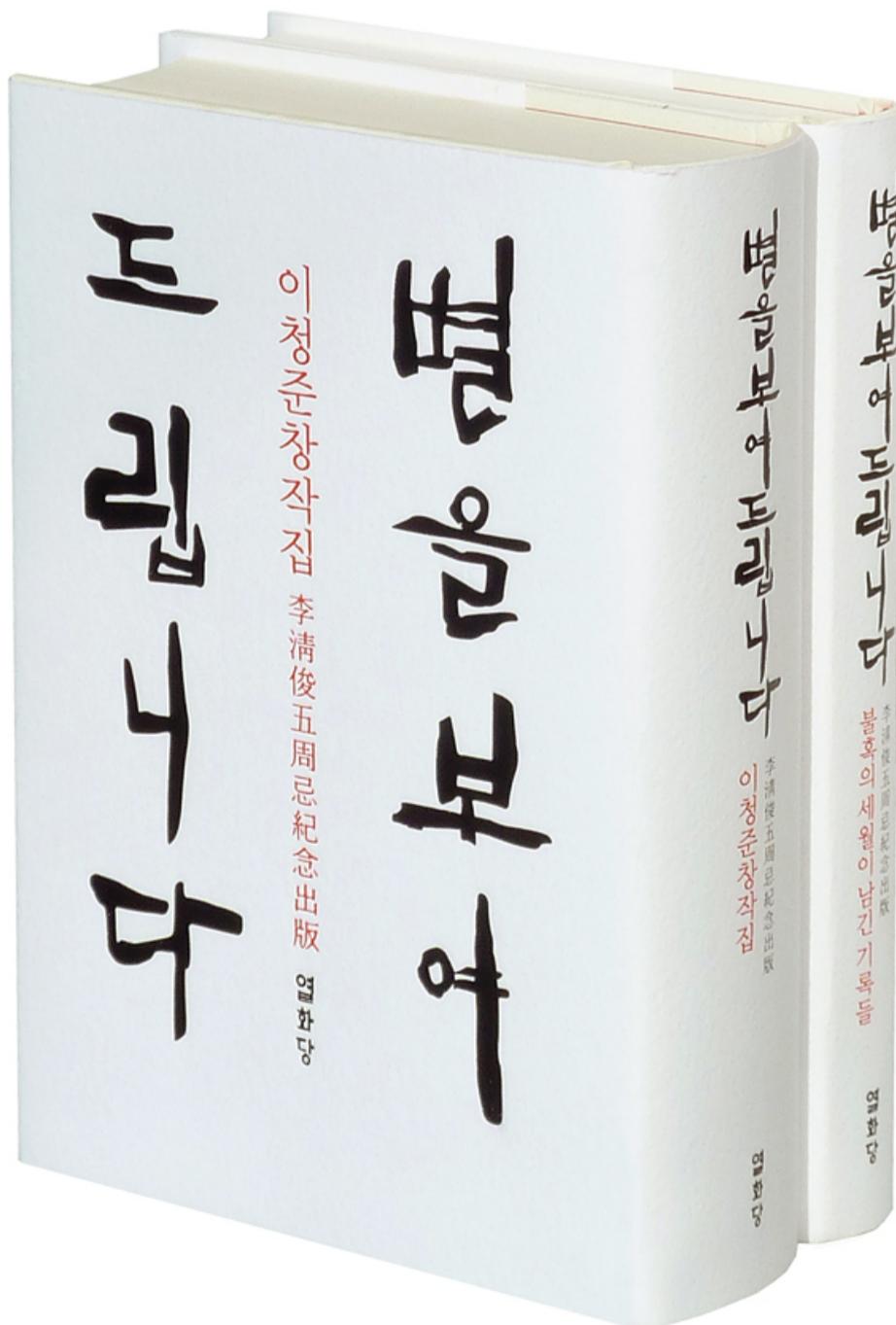
이윤옥 엮음 / 224면 / 가로쓰기

신국판 / 양장 / 케이스 포함 /

고유 일련번호가 찍힌 500질 한정본 / 값 150,000원

이 책의 보급 계획

- 500부 한정본으로, 001번부터 500번까지 고유 일련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 출간되는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할인 보급합니다. 101-200번: 130,000원 / 201-300번: 120,000원 / 301-400번: 110,000원 / 401-500번: 100,000원 / 001-100번: 당분간 배분하지 않고 보관됩니다.
- 9월 1일부터는 001-100번을 제외하고 번호에 상관 없이 정가로 보급하며,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열화당(031-955-7000)으로 해 주십시오.
- 이 책의 수익금은 이청준기념사업회와의 협의 아래 모두 ‘이청준님을 기리는 일’ 또는 ‘이청준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裸木

전2권

화가 박수근을 소재로 한

박완서의 첫 소설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문학의 대표 작가로 주목받아 온 박완서(朴婉緒, 1931-2011)의 1주기에 즈음하여, 그가 1976년 열화당에서 낸 첫 소설 『나목』을 복간했다. 『나목』은 육이오를 배경으로 화가 박수근을 소재 삼아 씌어진 작가의 데뷔작이다. 초판 당시의 세로쓰기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편집디자인, 용지, 제본방식 등 기념적으로 새로이 꾸몄다.

『나목』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

복간본과 함께 발간하는 『나목을 말하다』는 『나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편집한 것으로, 『나목』의 소재가 된 박수근의 그림 한 점, 1주기 기념출판에 부치는 장녀 호원숙의 글을 비롯하여, 박완서 자신이 『나목』에 관하여 쓴 글 다섯 편, 『나목』에 관한 평론 두 편,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 직후 독자들이 보내 온 감상문 열한 편, 그리고 작가가 직접 쓴 연보 등이 수록돼 있다. 책 말미에는 ‘『나목』의 달라진 표현 대조표 1970-1976-2012’를 수록하여 한 편의 소설이 세월에 따라 판본을 달리하면서 작가에 의해 어떻게 표현이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요새도 나는 글이 도무지 안 써져서 절망스러울 때라든가 글 쓰는 일에 넌더리가 날 때는 『나목』을 펴 보는 버릇이 있다. 아무 데나 펴 들고 몇 장 읽어내려 가는 사이에 알팍한 명예욕, 습관화된 매명(賣名)으로 추하게 굳은 마음이 문득 정화되고 부드러워져서 문학에의 때 묻지 않은 동경을 돌이킨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 내 어찌 이 작품을 편애 안 하랴.”

—박완서, 1985년판 『나목』 작가의 말에서.

裸木 박완서 첫 소설

468면 / 세로쓰기

裸木을 말하다

호원숙 엮음 / 152면 / 가로쓰기

신국판 변형 / 양장 / 케이스 포함 /

고유 일련번호가 찍힌 500질 한정본 중 두 자리수 번호의 '컬렉터스 에디션' / 값 1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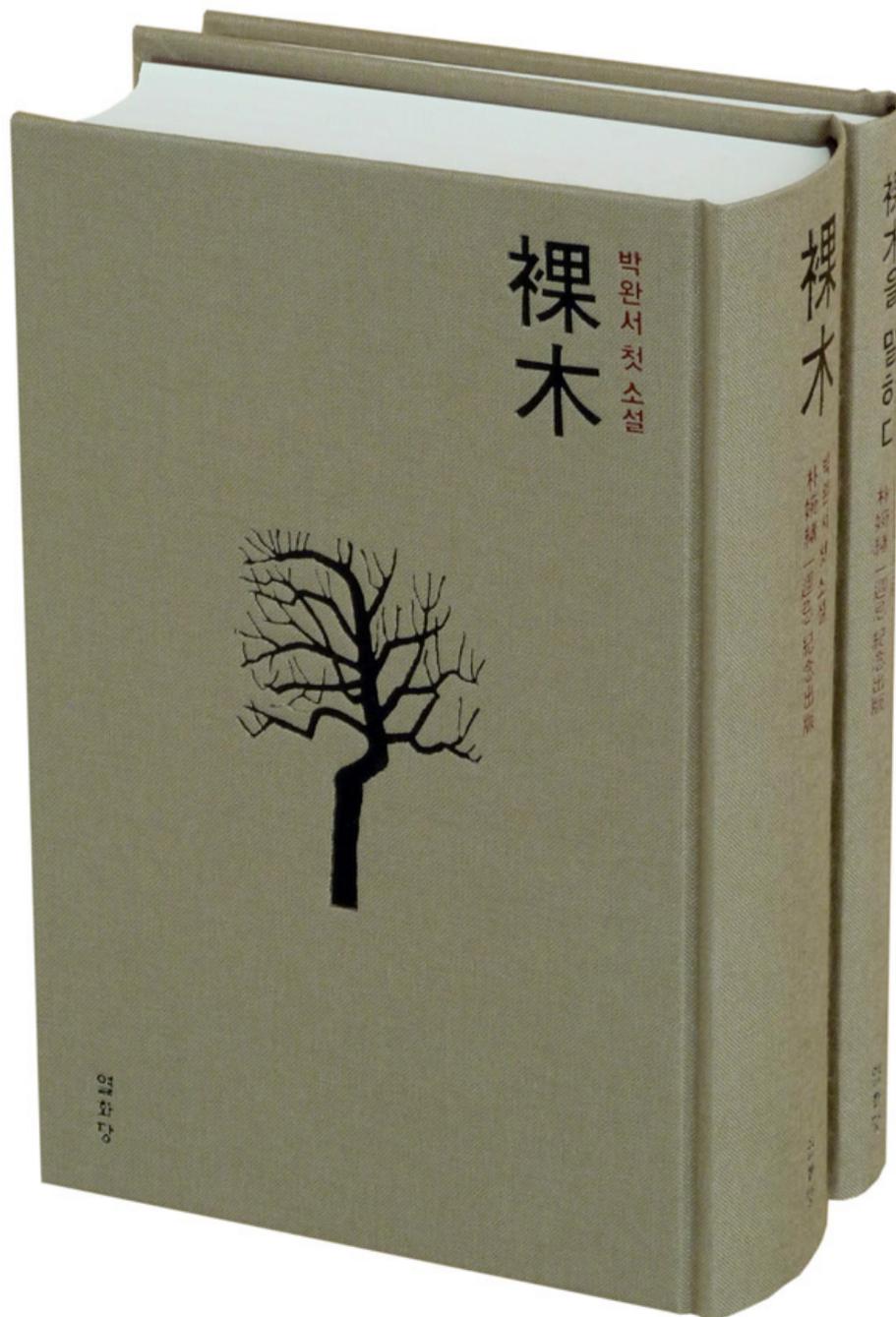
▪ 한정본이라 그동안 구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출판사에서 보관하던 앞자리 번호가 찍힌 10부(081-099번 중 홀수번호)를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보급합니다. 몇 부 남지 않은 귀중본으로, 정가를 부득이 15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구입 문의는 열화당(031-955-7000)으로 해 주십시오.

裸木 전2권 보급판

신국판 변형 / 반양장 / 값 35,000원

▪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화당 한국근현대서적 복각총서’는 한국에서 근대적 출판이 시작되던 1800년대 말에서 육이오 이후 사회 전반이 재건되던 1950-60년대 사이에 출간되었던 책과 기록물 중 다시 선보일 만한 가치있는 것들을 엄선하여, 복각본(復刻本) 형식의 한정본으로 선보이는 시리즈다. 이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배움의 자세로 오늘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출판의 사표(師表)로 삼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소중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학문과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조선요리제법

저자 방신영 / 해제 조후종

12.7x18.7cm / 양장 / 524면 / 값 50,000원 /

고유 일련번호가 찍힌 500부 한정본

이화여대 교수였던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이 1911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요리책 『조선요리제법』을 복각했다. 저본은 정인보(鄭寅普)가 쓴 제자(題字)와 이윤재(李允宰)의 교열 작업으로 품격있게 완성된 1937년 판이다. 요리용어의 해석부터 각종 양념, 오백여 종의 음식 조리법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별지로 음식연구가 조후종(趙厚鐘)의 해제가 들어 있다.

私禱文

저자 세실 쿠퍼 / 해제 김성수

11x15.2cm / 양장 / 184면 / 값 20,000원 /

고유 일련번호가 찍힌 500부 한정본

대한성공회의 부흥에 평생을 힘쓴 영국의 세실 쿠퍼(Alfred Cecil Cooper, 한국명 구세실(具世實), 1882-1964) 주교가 1932년에 쓴 『사도문(私禱文)』을 복각했다. 공동체의 예배인 기도(公祈禱)와 달리 개인의 신앙 증진을 위한, 유한한 존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서이다. 별지로 대한성공회 김성수(金成洙) 대주교가 쓴 해제가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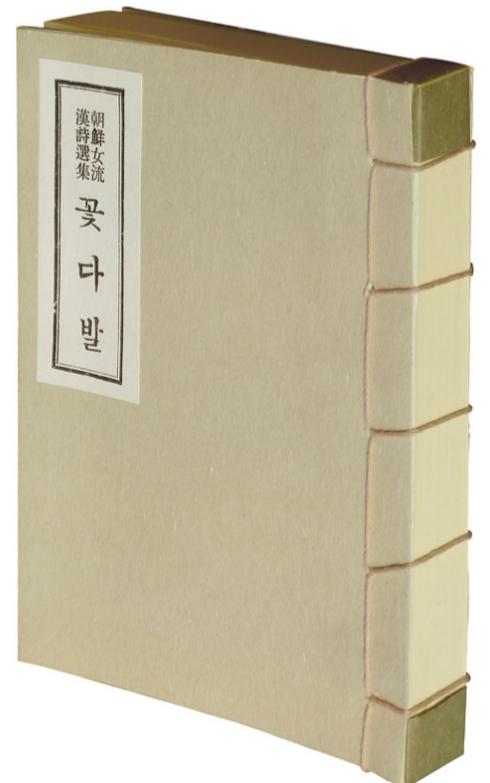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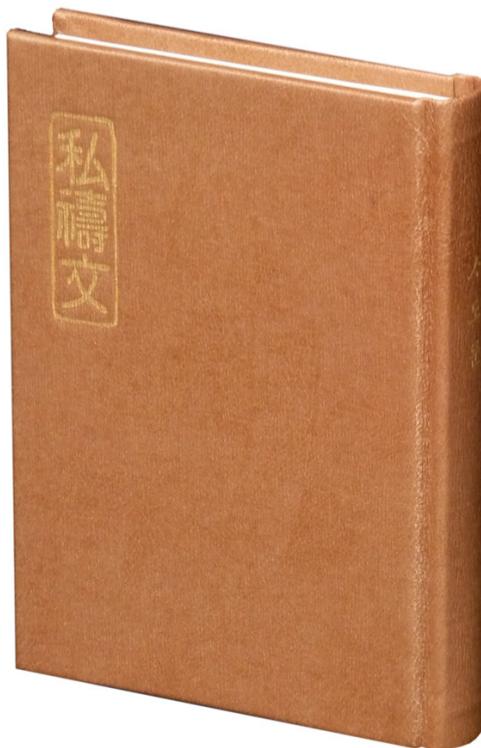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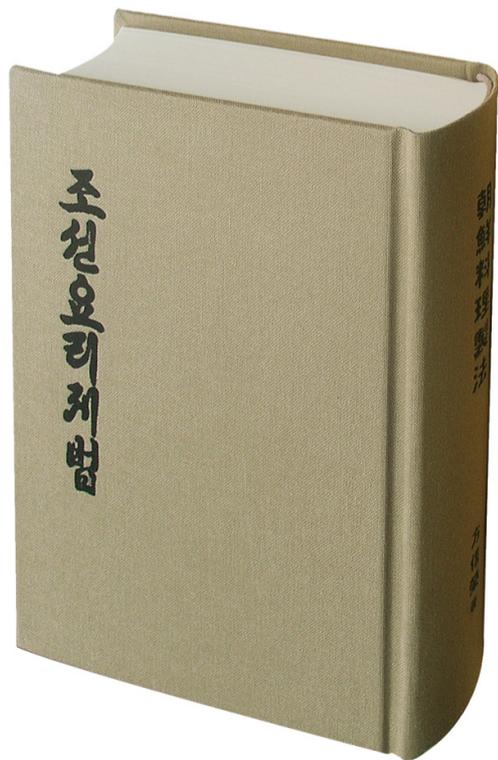
꽃다발 朝鮮女流漢詩選集

편역자 김억 / 해제 유성호

12.3x17.5cm / 선장본 / 228면 / 값 50,000원 /

고유 일련번호가 찍힌 500부 한정본

근대 번역시 문학의 세계를 개척한 시인 김억(金億)의 편역으로 1944년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출간된 조선여류한시선집 『꽃다발』을 복각했다. 원작(原作)의 착상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역자 자신의 언어와 숨결을 반영하는 ‘창작적 번역’으로 옮겨진,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예순여섯 명의 시 이백 편이 수록돼 있다. 원작의 앞에는 절구(絕句) 형식 그대로의 번역문을, 뒤에는 시조(時調) 형식의 창작적 번역문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 이 시리즈는 교보문고 광화문점, 인터넷 서점, 본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정 번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열화당(031-955-7000)으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